

# MERITZ

## 유통/화장품 Weekly



유통/화장품 Analyst 양지혜  
02. 6098-6667  
jihye.yang@meritz.co.kr

### 1. 전주 동향

#### 유통

1월 셋째주 유통업종 주가는 시장 대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함. 롯데 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공시 발표로 롯데쇼핑 주가가 당일 크게 상승하였음. 신세계는 백화점 내 4분기 점유율 상승과 면세점 적자폭 축소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에 성공하였음. BGF리테일과 이마트는 4분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감. 중국인 관광객 둔화 등 중국 인바운드 소비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호텔신라의 주가 하락도 계속되었음

#### 화장품 (생활소비재)

1월 셋째주 화장품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소폭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한국 정부의 사드 관련 중국 무역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임. 다만 사드 관련 추가적인 악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 주가 반등이 나타났음. 특히 코스맥스가 색조 중심의 상해 제2공장 증설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고성장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였으며 높은 성장성에도 저평가되어 있던 코스메카코리아와 클리오 등의 주가도 크게 반등하였음

### 2. 금주 전망

#### 유통: 롯데그룹 관련 지주사 전환 가시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전망.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롯데쇼핑에 긍정적인 수 있는 요인은 1) 코리아세븐, 롯데시네마 등 비상장 자회사들의 상장과 2)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조직 효율성 및 ROE 개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정보통신이 보유한 롯데쇼핑의 지분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쇼핑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룹차원에서 부담일 수 있음. 또한 전반적인 유통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되고 있어 주요 사업부의 실적 회복 여부 및 분할시 개편안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을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음

#### 화장품 (생활소비재): 사드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

화장품업종 관련 사드 이슈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 주식 시장이 과도하게 사드 이슈에 몰입되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드 이슈만 해결되면 화장품업종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 트렌드 변화에 집중하여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 즉 주가는 사드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기업들의 실적은 개별 펀더멘탈에 따라 크게 차별화될 전망. LG생활건강 (24일)을 시작으로 화장품업종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불황기 합리적 소비 패턴이 강화되면서 드럭스토어, 온라인 등 신채널과 가능성 화장품 및 색조 메이크업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유통

##### 관심종목

##### BGF리테일 (027410):

구조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와 즉석식품 등 상품력 강화에 따른 자체적인 성장성이 부각되고 실적 또한 양호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 다양한 서비스 상품 개발로 고객 매장 방문빈도 또한 더욱 높이고 있음

##### GS리테일 (007070):

2017년 편의점 고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슈퍼마켓 구조조정과 호텔 사업부의 파르나스타워 안정화로 실적 레벨업 전망. 식품업체들의 가격인상 (평균 4~5%)으로 편의점 기준점성장률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겠음

##### 종목 코멘트 (탐방)

##### 연우 (115960)

- 4Q 현황: 주요 고객사인 아모레퍼시픽향 매출 부진과 성과급 등으로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 612억원, 영업이익 57억원)를 크게 하회할 전망
- 동사는 아모레퍼시픽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 펌프형 용기를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으며 면세 채널 성장 둔화와 고가 화장품 시장 침체로 상반기까지 타격 불가피할 전망
- 국내 부진을 수출 부문이 점진적으로 대체하면서 하반기 회복 기대. 로레알, P&G의 신규 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주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 중장기 중국 사업 확대 기대. 2016년 기준 중국 매출 비중 2.9% 수준

#### 화장품 (생활소비재)

##### 관심종목

##### 코스맥스 (192820)

전세계 화장품 시장이 색조 중심으로 성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신제품들로 고객 다변화와 해외 수출 성과 두드러지고 있음. 2017년 국내 및 중국법인 Capa 증설에 따른 높은 성장 지속될 전망

##### LG생활건강 (051900):

2017년 화장품 브랜드 다변화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 개선 지속될 전망. 생활용품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 및 해외 성장 전략 또한 가시화. 음료 가격인상 효과 또한 긍정적

##### 종목 코멘트 (탐방)

##### SK바이오랜드 (052260)

- 4Q 현황: 천연소재 중심으로의 화장품원료 시장 트렌드 변화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의류기기 (마스크팩) 판매 호조로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 234억원, 영업이익 40억원) 상회할 전망
- 화장품원료: 전방산업 둔화 우려에도 기술장벽이 있는 독자적인 기능성 원료들을 생산하고 있어 꾸준한 성장 지속
- 수출 다변화: 2016년 기준 수출 비중 16% 수준 예상.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미주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유산균 발효마늘 추출물) 인증으로 2017년 유통사와의 PB브랜드 런칭 예정

## 4. 예정 이벤트 (실적발표/IR 등)

**실적발표** LG생활건강 1/24 예정 / 신세계, 뉴트리바이오택 1월 넷째주 예상 /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이마트, BGF리테일 2월 둘째주 예상 / 코스맥스, 토니모리, 에이블씨엔씨, 코웨이 2월 중순 예상 / 연우 2월 3~4주차 예상

## 5. 주요 뉴스

### 유통

**백화점 설 선물세트 판매 최대 10% ↓...소비경기 공포 얼어붙었다:** 청탁 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올해 설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이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현대백화점의 15일까지 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 신세계백화점 역시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 지난 12~15일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1.6% 하락한 것으로 파악. 반면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일찍 시작한 롯데백화점은 지난 2~15일 진행된 본 판매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9.6% '깜짝' 신장 (연합뉴스, 1/16)

**유통업계 '매서운 한파':**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과 6대 광역시 1000여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4년 만의 최저치인 89로 집계됐다고 17일 발표. RBSI가 80점대로 내려간 것은 2013년 1분기 87 이후 처음. 업종별로는 겨울철 특수를 맞은 인터넷쇼핑몰(108)과 홈쇼핑(104)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어두울 것으로 전망 (한국경제, 1/18)

**수도권 남부 신도시 新 유통 격전지:** 신세계 4~5월 배곧신도시, 롯데연말 기흥신도시에 프리미엄아웃렛 오픈 예정. 아웃렛에 레저·체험 결합, 착공 예정 대형몰만 10여곳, 기존 점포와 각축전 예고. 유통업계의 출점 경쟁이 서울 인근 신도시 초대형 복합몰로 집중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발굴을 위해 신도시의 맹주가 되기 위한 피 튀기는 경쟁이 예상됨 (서울경제, 1/16)

**한한령 속 다가오는 춘제...면세점 '싼커 공략':**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면세점은 춘제를 앞두고 적립금과 선불카드 증정 등 할인 행사 뿐 아니라 특색 있는 이벤트 마련에 나섬. 롯데면세점은 자사 광고모델이 출연한 자체 제작 웹드라마 홍보 등을 통해 싼커 모객에 나섬. 신라면세점은 20일까지 자체 운영하는 중국판 파워블로거 '왕홍' 집단인 '신라따까'를 초청해 한국 투어를 진행.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일부터 명동점을 방문해 1달러 이상 구매한 외국인 개별관광객에게 '서울 여행 패키지를 증정하는 행사를 계획 (한국경제, 1/16)

### 화장품 (생활소비재)

**'약발 받은' 화장품 잘 나가네:** 지난달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드로그스토어 올리브영에서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함유한 제품 매출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약 150% 증가. LG생활건강 브랜드인 더마리프트의 '인텐시엄 아쿠아 리치 크림'은 올리브영에서 12월 매출이 11월보다 52% 증가. 올리브영 관계자는 "화장품 성분을 따져보는 소비자들이 약 성분이 들어 있는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설명. 로드숍 브랜드에서도 약 성분 화장품은 인기.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주는 모바일 앱인 '화해' 다운로드 건수는 작년 말 350만건을 넘어섬 (한국경제, 1/16)

**서경배의 '넥스트 차이나' 프로젝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올해 글로벌 영토를 넓히는 데 '올인'하고 있음.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중국 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올해 안에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에 각각 매장을 1개씩 더 오픈할 예정. 베트남 화장품 시장 규모는 2500억원대로 매년 15%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70%가 40대 미만이라서 시장 전망이 밝다는 게 회사 측 설명 (매일경제, 1/19)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시동:** 롯데쇼핑·롯데케미칼 등 롯데 주요 상장 계열사들은 19일 공시를 통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며 "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롯데의 지주사 전환은 △호텔롯데 상장 △계열 분리 △중간 금융지주사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리플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롯데는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조직 쇠신 방안을 의뢰해 현재 90여 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4개 사업부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도출해내고 설 연휴 즈음에 재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 (서울경제, 1/19)

**그래드 중...롯데백화점 상하이물 오픈:** 롯데백화점은 중국 '중신타이푸상업관리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위탁운영을 맡는 상하이 타이푸 광장 쇼핑물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17일 밝힘. 현재 텐진, 선양, 웨이하이, 청두 등 중국 4개 도시에서 5개 점포를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은 이번 타이푸광장 운영을 통해 상하이에 처음 진출하게 됨. 특히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에는 한국 유명 브랜드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국내 파트너사들의 중국 진출을 모색할 예정 (매일경제, 1/18)

**대구 '쇼핑 메카' 신세계백화점, 오픈 한달새 500만명 발길:** 신세계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지난달 오픈한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 한 달간 500만 명의 고객이 몰렸다고 17일 밝힘. 오픈 이후 꾸준히 주말 하루 평균 30만 명의 고객이 방문했다는 설명. 지역별로는 지난 한 달간 대구 이외 지역 고객 방문이 전체의 50%에 달함 (서울경제, 1/18)

**택배·차량공유에서 세탁서비스까지...진화하는 편의점:** 먹거리 중심이던 편의점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진화하고 있음. 18일 세븐일레븐은 서울 용산구 산천점에서 언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탁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힘. 전문 세탁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무인세탁소를 설치한 것.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 바쁜 현대인들에게 생활 편의 서비스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말함 (아시아경제, 1/20)

**중국 CFDA, 심사허가제서 등록관리제로 변환 적용:** 중국 CFDA는 수입 비특수용화장품(일반 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하기 위해 상해 푸둥신구에서 시범운영에 나서겠다고 1월 17일 발표. 위생허가증을 받아야만 정식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위생 허가를 받기 위한 등록만으로도 정식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원활한 신제품 공급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위생 허가 기간 중에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창업신문, 1/20)

**LG생활건강의 새 동력 '뷰티 심층사':** LG생활건강이 'VDL'과 '빌리프' 'CNP차면박'의 차세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음. 특히 한국 화장품이 취약한 색조에 집중 투자하고 이달 중에 맞춤형 화장품 매장을 CNP차면박 이대점에 오픈할 예정. 색조 전문 브랜드 VDL은 차 부회장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난해 성장을 30%를 기록. 2015년 864억원이었던 빌리프 매출액도 2016년 970억원으로 증가 (매일경제, 1/17)

**코스맥스, 中 색조화장 공략...연 2억개 생산규모 공장 완공:** 상하이 색조 전용 공장, 중국 정부 소비세 폐지 수혜, 완공과 동시에 생산, 조원에 달하는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 (한국경제, 1/19)

### 6. 주요종목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백만원)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롯데쇼핑	A023530	227,500	7,164,178	18.1	15.8	0.4	0.4	2.4	2.7
	현대백화점	A069960	99,000	2,316,842	7.7	7.2	0.6	0.5	7.9	7.7
	신세계	A004170	177,000	1,742,597	10.1	9.7	0.5	0.5	5.4	5.6
	CJ오쇼핑	A035760	158,400	984,538	9.9	8.9	1.2	1.0	12.6	12.5
	GS홈쇼핑	A028150	171,000	1,122,188	10.7	10.3	1.0	0.9	9.3	8.7
	현대홈쇼핑	A057050	108,000	1,296,000	9.9	8.9	0.9	0.8	9.5	9.4
	엔에스쇼핑	A138250	151,500	510,494	8.0	7.4	1.1	1.0	15.2	13.9
	이마트	A139480	196,500	5,477,598	14.3	12.9	0.7	0.7	5.1	5.6
	GS리테일	A007070	49,650	3,823,050	18.7	15.7	1.8	1.7	10.2	11.3
	BGF리테일	A027410	91,200	4,518,743	22.2	19.0	4.2	3.5	20.5	20.1
	롯데하이마트	A071840	42,050	992,704	8.0	7.3	0.5	0.5	6.4	6.7
	호텔신라	A008770	46,000	1,805,414	24.7	16.5	2.2	1.9	9.2	12.5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A090430	319,000	18,648,258	26.9	22.7	4.8	4.0	19.3	19.7
	아모레G	A002790	138,000	11,379,229	26.9	22.8	3.5	3.1	14.4	15.4
	LG생활건강	A051900	875,000	13,665,922	22.5	20.1	4.6	3.8	24.2	22.3
	코스맥스	A192820	128,500	1,291,362	26.2	19.0	5.1	4.2	28.0	27.5
	한국콜마	A161890	67,600	1,426,370	21.3	17.5	4.3	3.5	22.6	22.2
	코스메카코리아	A241710	60,700	324,138	18.0	12.9	6.0	4.3	36.1	33.1
	연우	A115960	32,400	401,695	14.9	12.2	1.9	1.7	14.1	15.0
	대봉엘에스	A078140	11,350	125,833	11.3	9.2	1.7	1.4	16.6	16.8
	SK바이오랜드	A052260	16,500	247,500	16.2	14.6	1.7	1.6	11.2	12.7
	클리오	A237880	33,100	558,503	13.8	13.2	8.8	8.3	56.9	65.2
	에이블씨엔씨	A078520	19,400	298,347	15.8	13.3	1.5	1.4	10.1	10.8
	토니모리	A214420	20,850	367,794	19.4	17.1	2.6	2.3	13.8	14.0
생활소비재	코웨이	A021240	87,600	6,690,933	18.8	17.3	4.5	4.0	26.3	25.8
	쿠쿠전자	A192400	131,500	1,289,142	14.0	12.3	1.7	1.5	15.2	15.0
	뉴트리바이오텍	A222040	58,300	601,306	22.4	15.3	5.6	4.0	29.5	32.4
	콜마비엔에이치	A200130	16,350	483,037	14.7	14.3	3.0	2.5	21.5	18.1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7.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각국통화)	시가총액 (백만달러)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노스트롬	JWN US	45	7,882	15.4	14.5	8.6	8.1	57.3	77.0
	월마트	WMT US	68	209,776	15.8	15.7	2.6	2.6	17.1	16.9
	이베이	EBAY US	31	34,712	16.5	14.9	4.8	4.4	30.4	28.8
	세븐 & 아이홀딩스	3382 JP	4,564	34,614	44.1	19.6	1.7	1.6	3.5	8.4
화장품	로레알	OR FP	170	100,876	26.4	24.6	3.9	3.6	14.7	15.0
	에스티로더	EL US	79	29,007	23.2	20.8	9.9	9.8	37.1	50.1
	시세이도	4911 JP	3,092	10,582	39.5	37.5	3.0	2.8	8.1	7.6
	상해자화	600315 CH	26	2,566	40.0	33.2	3.1	2.9	7.2	8.4
생활소비재	패스트리테일링	9983 JP	39,720	36,048	38.2	33.6	5.9	5.2	17.0	17.3
	나이키	NKE US	54	89,193	23.0	20.5	7.4	3.6	31.5	33.5
	LVMH	MC FP	179	95,893	22.5	20.6	3.4	3.1	15.6	15.7
	조지루시	7965 JP	1,641	1,019	13.2	12.2	1.7	1.6	12.6	12.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8.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롯데쇼핑	5.3	2.3	(0.4)	16.1	4.6	2.7	5.9	1.1	(1.7)	13.6	(7.3)	0.8
	현대백화점	0.5	(10.4)	(19.5)	(22.7)	(17.5)	(9.2)	1.1	(11.6)	(20.7)	(25.2)	(29.4)	(11.1)
	신세계	4.1	(3.5)	(13.5)	(7.6)	(13.9)	0.6	4.7	(4.7)	(14.7)	(10.1)	(25.8)	(1.4)
	CJ오쇼핑	(1.1)	(2.9)	(2.2)	(0.5)	(9.2)	(2.8)	(0.5)	(4.0)	(3.4)	(3.0)	(21.2)	(4.7)
	GS홈쇼핑	3.4	(1.8)	(4.4)	2.5	5.6	(0.6)	3.9	(3.0)	(5.7)	0.0	(6.4)	(2.5)
	현대홈쇼핑	(0.5)	(4.0)	(8.1)	(12.9)	(1.4)	(3.1)	0.1	(5.2)	(9.3)	(15.4)	(13.3)	(5.1)
	엔에스쇼핑	(0.3)	2.4	(5.3)	(17.4)	(15.6)	(1.3)	0.2	1.2	(6.5)	(19.9)	(27.5)	(3.2)
	이마트	3.2	2.1	17.0	20.2	20.2	7.4	3.7	0.9	15.7	17.7	8.3	5.5
	GS리테일	0.3	2.0	7.0	(6.7)	(20.2)	4.3	0.8	0.8	5.8	(9.2)	(32.1)	2.4
	BGF리테일	3.4	11.0	2.7	(15.0)	(7.9)	11.5	3.9	9.8	1.5	(17.5)	(19.9)	9.6
	롯데하이마트	0.0	(7.6)	(6.1)	(3.7)	(23.6)	(0.4)	0.5	(8.7)	(7.4)	(6.2)	(35.5)	(2.3)
	호텔신라	(1.1)	(4.7)	(26.3)	(28.9)	(29.3)	(4.5)	(0.5)	(5.8)	(27.5)	(31.4)	(41.3)	(6.4)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4	(0.8)	(13.9)	(24.4)	(17.0)	(0.8)	2.0	(1.9)	(15.1)	(26.9)	(29.0)	(2.7)
	아모레G	6.6	8.7	(12.1)	(15.9)	(2.1)	3.8	7.1	7.5	(13.3)	(18.3)	(14.1)	1.8
	LG생활건강	2.5	2.8	(3.4)	(23.0)	(10.2)	2.1	3.0	1.7	(4.7)	(25.5)	(22.1)	0.2
	코스맥스	6.6	10.3	(10.1)	(16.3)	(27.6)	7.5	7.2	9.1	(11.3)	(18.8)	(39.5)	5.6
	한국콜마	5.6	0.9	(24.9)	(32.3)	(28.8)	2.7	6.2	(0.3)	(26.1)	(34.8)	(40.7)	0.8
	코스메카코리아	15.6	10.2	N/A	N/A	N/A	8.4	16.2	9.0	N/A	N/A	N/A	6.5
	연우	1.3	(11.6)	(29.0)	(27.2)	(18.5)	(16.0)	1.8	(12.8)	(30.3)	(29.7)	(30.4)	(17.9)
	대봉엘에스	1.3	(4.2)	(12.7)	(28.4)	4.6	(4.2)	1.9	(5.4)	(13.9)	(30.9)	(7.3)	(6.2)
	SK바이오랜드	(1.2)	(4.1)	(17.9)	(30.2)	(39.1)	(8.1)	(0.7)	(5.2)	(19.1)	(32.7)	(51.0)	(10.0)
	클리오	13.9	4.6	N/A	N/A	N/A	8.2	14.5	3.4	N/A	N/A	N/A	6.2
	에이블씨엔씨	(0.8)	(0.8)	(3.7)	(40.0)	0.4	(6.3)	(0.2)	(2.0)	(5.0)	(42.5)	(11.6)	(8.2)
	토니모리	0.0	(10.9)	(23.7)	(37.8)	(10.1)	(8.4)	0.5	(12.1)	(25.0)	(40.3)	(22.1)	(10.3)
생활소비재	코웨이	(3.5)	(2.0)	(6.4)	(2.8)	(7.1)	(0.8)	(3.0)	(3.2)	(7.6)	(5.3)	(19.0)	(2.7)
	쿠쿠전자	(0.8)	(0.4)	(6.1)	(12.3)	(44.2)	1.9	(0.2)	(1.5)	(7.3)	(14.8)	(56.1)	0.0
	뉴트리바이오텍	3.2	(1.9)	(20.4)	(25.6)	16.4	(5.2)	3.7	(3.0)	(21.6)	(28.1)	4.4	(7.1)
	콜마비엔에이치	(2.4)	(12.8)	(40.8)	(55.5)	(60.2)	(11.9)	(1.9)	(14.0)	(42.0)	(57.9)	(72.1)	(13.8)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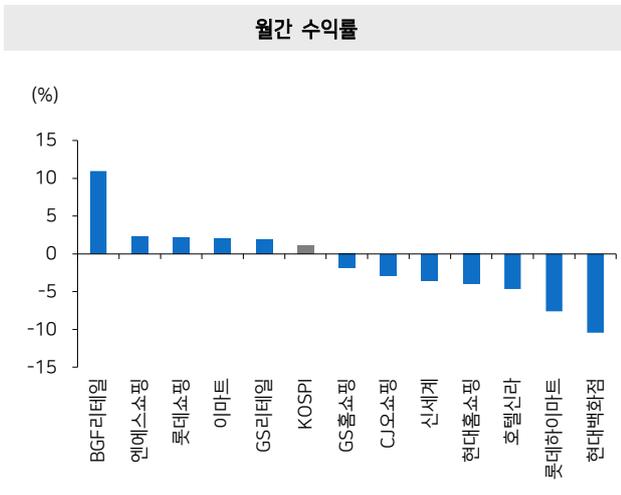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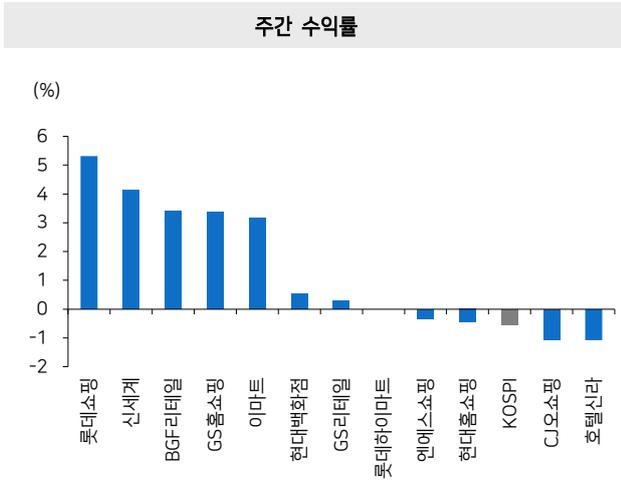
### 9.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노스트롬	(5.8)	(26.1)	(17.1)	12.8	(1.7)	(5.1)	(7.1)	(26.8)	(22.8)	5.9	(20.1)	(6.8)
	월마트	(1.4)	(3.0)	(0.6)	(7.6)	7.4	(1.2)	(2.7)	(3.7)	(6.4)	(14.5)	(11.0)	(2.9)
	이베이	3.6	5.5	(1.8)	26.2	20.6	4.6	2.3	4.8	(7.5)	19.3	2.1	2.9
	세븐 & 아이홀딩스	1.8	5.0	(0.4)	11.9	(11.1)	2.5	1.5	2.6	(15.8)	(16.9)	(21.0)	0.7
화장품	로레알	(1.8)	4.7	4.3	(1.5)	13.8	(1.8)	(2.8)	1.6	(6.0)	(18.6)	0.5	(2.8)
	에스티로더	2.4	(0.2)	(9.9)	(14.9)	(4.4)	3.5	1.2	(0.9)	(15.6)	(21.8)	(22.9)	1.8
	시세이도	3.6	7.8	15.8	7.2	33.2	4.5	3.3	5.4	0.4	(21.6)	23.3	2.7
	상해자화	(1.9)	(3.6)	(5.9)	(7.7)	(26.1)	(2.6)	(3.8)	(1.2)	(10.9)	(13.3)	(25.1)	(4.3)
생활소비재	패스트리테일링	(8.2)	(3.4)	18.6	56.1	4.1	(5.0)	(8.5)	(5.8)	3.2	27.3	(5.8)	(6.8)
	나이키	5.6	4.6	4.1	(5.0)	(8.4)	6.1	4.3	3.8	(1.6)	(11.9)	(26.9)	4.4
	LVMH	(1.2)	1.5	15.3	33.4	32.4	(1.2)	(2.2)	(1.5)	5.0	16.2	19.1	(2.2)
	조지루시	2.2	11.4	10.8	0.0	4.6	4.6	1.9	9.0	(4.6)	(28.8)	(5.3)	2.8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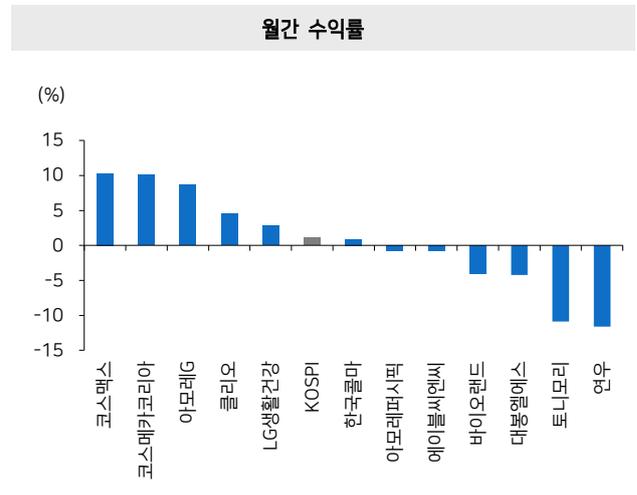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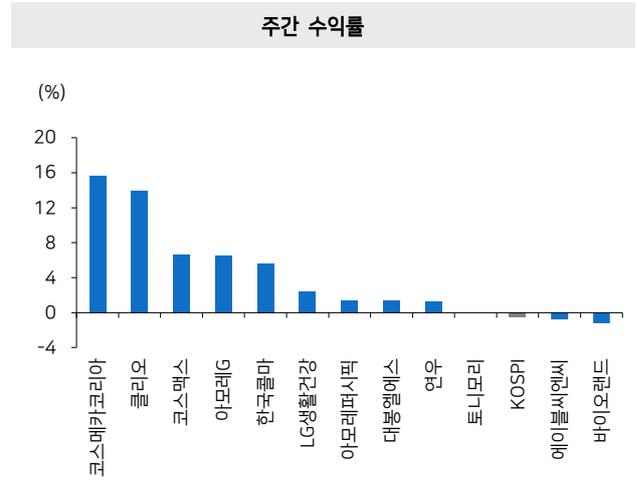
### 10. 주간/월간 수익률

#### 유통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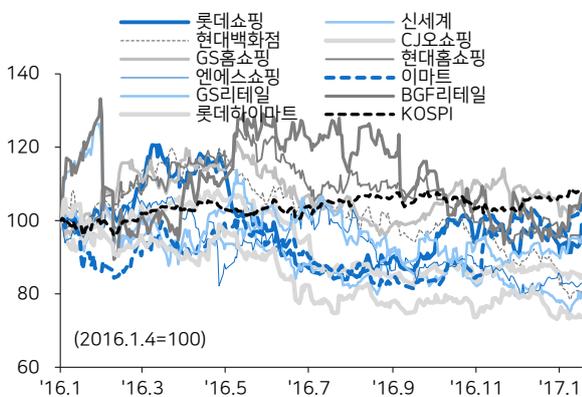
####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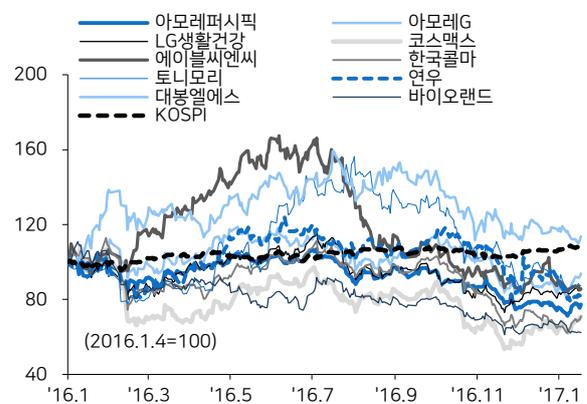
### 11. 주가 추이

####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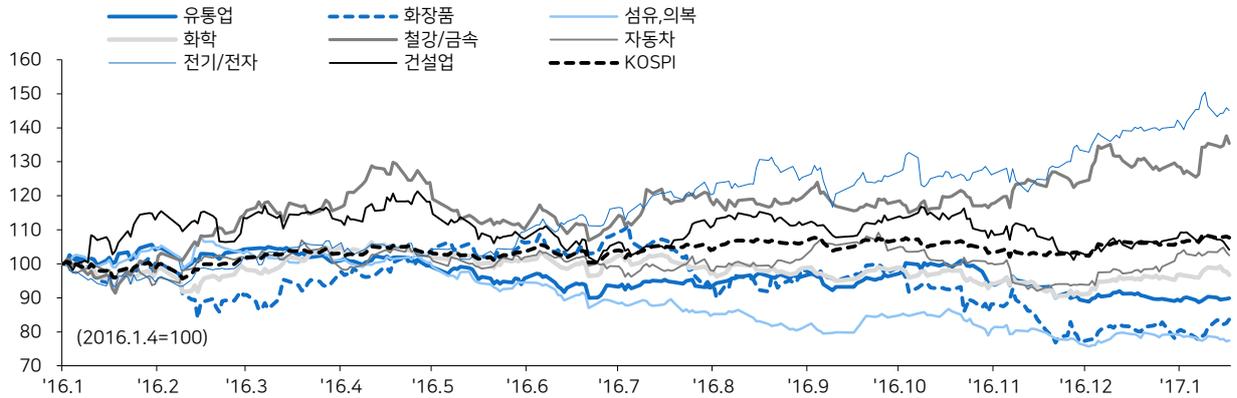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12. 업종별 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지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2.7%
중립	7.3%
매도	0.0%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